

사회

도로 곳곳 중앙분리봉·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설치

광주 年 수익원 '무질서 대가' 치른다

사고위험·예산 행정 낭비

언제부터인가 중앙선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생명선'이자 운전자들의 약속인 중앙선이 무시되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시설에 예산·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무질서에 대한 특별한 대가도 치르고 있다.

중앙선침범·무단횡단이 횡행하고, 이를 막기 위한 '중앙분리봉'(시선유도봉)과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등 교통 시설물이 도로 곳곳에 세워져 경관을 해치는 등 광주는 외지인이 보기엔 매우 무질서한 도시로 비춰지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암고가도로로 올라 가는 구간, 이곳은 4차선인 도로가 고가도로(2차선) 접경 지점부터 2차선으로 좁아진다. 고가도로에 오르는 차량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4차선에서 2차선(고가도로)으로 줄어들어 혼잡하다. 이 때문에 우측 무동경계장 쪽에서 고가도로로 오르려는 차량을 막기 위해 중앙선을 그었으며, 차량은 우회해 운암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

9일 밤 10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



누가 넘어뜨렸을까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앞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중 일부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 중앙 분리봉 구간을 뒤로 하고 10m를 역주행해 고가도로로 올랐다. 이어 10분후 경승용차 한 대가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고가도로를 탔다. 이 때문에 중앙 분리봉 일부는 파손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광주역을 기점으로 산수동·조선대·월산동·광천동에 이르는 제1순환도로 대부분이 중앙 분리봉으로 물결을 이룬다.

중앙분리봉은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점령한 지 오래다. 북구 일곡동 D아파트 정문 인근 왕복4차선 도로는 아파트 앞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봉 10여개가 설치돼 있고,

이마저 수시로 파손되는 실정이다. 20여m를 우회하기 싫어 중앙선을 넘는 차량 탓이다.

무단횡단은 왕복 8차선도 무색하게 한다. 제1순환도로 남구 월산동 구간의 도로는 8차선으로 도로 폭이 25m에 달하지만 무단횡단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개당 1.5m)가 20m 또는 10m 정도씩 중앙선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같은 8차선 도로로 과속주행이 많고, 이동인구가 많은 조선대치과병원 앞에도 30m 가량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분리대 중 일부는 무단횡단 보행자들로 인해

훼손된 상태다. 북구 오치동 한 분식점 앞 왕복 4차선 도로도 무단횡단 분리대 3개가 부러진 채 방치되는 등 이면도로 곳곳의 무단횡단 분리대와 중앙 분리봉이 파손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도로에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해 설치된 중앙 분리봉은 350개소에 1만5000개에 달하며, 예산은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는 31개소에 5065m에 걸쳐 설치돼 있으며, 연간 예산은 3000만원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저축은행 대출 부실검사 금감원 감사역 30명 소환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감홍일 검사장)는 10일 기역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2천여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에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환뉴스

정체불명 바이러스 공포

서울서 30대 폐렴 임산부 첫 사망 환자 8명 중 7명이 출산 전후 여성

산모를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최근 집중적으로 발견된 가운데 10일 첫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서울 시내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8명의 환자 가운데 A(35·여)씨가 뇌출혈 증세로 이날 오전 사망했다.

서울에 살던 임산부 A씨는 감기 증세로 지난달 8일 이 병원을 방문해 결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도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같은 달 11일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폐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다 결국 입원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임신 9개월이던 A씨는 치료를 위해 태아를 강제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산모들에게 집중된 폐쇄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환자에서 채취한 검체를 통해 폐렴을 유발한 원인 확인에 나섰으며,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상태가 악화해 폐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채취된 바이러스 검

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사망 환자의 바이러스 검사에 유독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 원인 병원체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일단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외국 논문에 따르면 산모 1천명당 폐렴환자가 1.51명가량 발생하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30%에 이른다"며 "이번 일로 산모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최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출산 전후의 여성이었다.

/연환뉴스

### “버릇없이 군다”

고흥서 고교생들, 훈계하다 후배 폭행치사

고흥경찰은 10일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흥 모 고교 2년 신모(17)군 등 고교생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밤 11시께 고흥군 고흥읍 모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류모(17)군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 등은 또 류군의 친구인 국모(17)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군 등은 류군 등이 평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불러내 훈계를 하다가 화가에 불타고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

### “죽어도 못 보내”

순천 40대, 내연녀 결별 요구에 분신 자살

지난 9일 오후 7시45분께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A(여·42)씨의 집 안방에서 이모(46)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내연녀인 A씨가 결별을 요구한 데 격분, A씨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아파트 내부면적 108.9㎡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으며, 입주민들이 대피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나원침 (8311) 김중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많이 억울하다

가장악날은 왜 없냐이거지

술마시는 이유는 알려줬으니 술안마내라!!!

빗길 오토바이 사고

고흥서 3명 사상

고흥의 한 도로에서 3명이 함께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일 오전 9시50분께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덕동마을 앞 원동 1차선 도로에서 고흥 모 고교 3년 김모(19)군 등 3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 커브길을 지나던 중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고, 각각 김군의 친구와 선배인 김모(19)양과 육군 모 부대 정모(20) 일병이 부상을 입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동네 선배인 정 일병이 휴가를 나온 것을 기념해 어울리는 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경찰 “5·18기념식 경비 유연하게”

경비인력 대폭 축소

광주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내용 미정으로 5월단체와 국가보훈처간 갈등때문에 경비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방침(광주일보 5월 10일 6면)과 관련,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러질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행사’ 경비인력을 지난해 51개 중대 4000명에서 33개 중대 25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경비인력은 근무복 또

는 교통 경찰복으로 입도록 하고 주 최 측 등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해 31주년 기념행사가 차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러나 추모 분위기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인적·물적 피해를 불러오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 최 측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월동 편의점에 새벽 흥기 강도

20만원 빼앗아 달아나

새벽시간대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침입, 흥기로 아르바이트생 한모(19)양을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한양은 경찰에서 “남성이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해서 건넸는데 갑자기 점퍼 안에서 흥기를 꺼내 위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키 180cm 가량에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의 달아나 응의자를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아내 외도 현장에서 내연남과 몸싸움

쌍다발

○...아내의 외도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내연남과 몸싸움 끝에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9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복지시설 앞에서 아내(51)의 외도 현장을 덮쳐 내연남 B(56)씨와 서로 목살을 잡고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3주 전부터 아내가 방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는 등 수상한 김세를 쫓 A씨는 운동하러 간다는 아내를 미행해 아내가 내연남과 밀회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더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3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검찰직</b>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결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총합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영역, 국가, 행정, 행정, 국어, 헌법, 문화, 경제, 교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 소망직 (전문)</b> 시험장과 동일, 체력검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